

보도시점 2023. 5. 31.(수) 배포즉시 배포 2023. 5. 31.(수)

지식재산으로 한·일 경제 다시 잇는다!

- 특허청, 일본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간담회 개최(5.31) -
- 수출 4위, 상표출원 2위 대상국인 일본과 경제협력 확대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5월 31일(수) 오후 12시 30분, 일본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*)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도쿄무역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.

* 2015년 7월에 개소한 이후,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상담, 법률자문, 지재권 법률서비스, 해외출원 지원 등 제공

간담회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상위 4위 대상국*이자 상표출원 2위 및 특허출원 4위 대상국**인 일본과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'22년 국가별 우리나라 수출액(억달러) : 중국 1557, 미국 1097, 베트남 609, 일본 306

** '21년 국가별 우리나라 상표출원(건수) : 미국 5926, 일본 3680, EU 2297, 베트남 1900

'21년 국가별 우리나라 특허출원(건수) : 미국 36909, 중국 17691, EU 9386, 일본 5936

특허청은 일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*과 지재권 법률전문가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,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

* 마크로젠, 사이넷, CU메디컬시스템, LS, 위조도메인, 해피식품 등 6개사

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▲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, ▲ 국산 브랜드(K-브랜드) 위조·모방상품 유통 및 한류편승행위 기승, ▲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.

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·모방상품 유통 및 상표무단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, 해외진출 이전부터 미리 상표·특허 등 지재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.

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,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,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	책임자	과 장	한덕원 (042-481-5182)
	산업재산분쟁대응과	담당자	서기관	송석민 (042-481-3917)
	산업재산보호협력국	책임자	과 장	정대순 (042-481-5063)
	국제협력과	담당자	서기관	황상동 (042-481-8659)